

## INN & OUT 햄버거

지난주 우리교회가 예배하는 Portland에서 멀지 않은 Keizer 시에 In-N-Out 햄버거 집이 생겼다. In-N-Out 햄버거의 유명세는 이전부터 잘 알고 있던 터라 나름대로 반가웠다. 그런데 그날 우연찮게 그곳을 지나가다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맛을 보기 위하여 햄버거 가게 앞에 줄을 서 있는지를 보면서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다. “그렇게 그 햄버거가 유명했는가?” 생각하게 되었다. 오래전 LA에서 살던 시절 가까운 곳에 그 햄버거 가게는 여러 군데에 있었다. In-N-Out 햄버거 회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그 사업을 하는데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여러 군데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어떻게 해서든 예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Drink 컵에도 요한복음 3장 16절을 새겨 넣을 정도로 열심 있는 주인이었다. 물론 맛도 좋았던 기억이 있다. 하지만 LA를 떠난 후로 개인적으로 그 햄버거가 제일 맛있다는 생각은 하지 못했다. 하지만 믿는 사람으로서 늘 그 사업이 잘 되기를 바라고 있었고, 잘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가슴이 뿌듯했던 것은 사실이다. 그런데 그 햄버거 가게가 지난 주 가까이에 생겼다니 잘된 일이고 얼마 후 내가 살고 있는 북쪽으로 진출하게 되면 단골이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그날 그곳은 지나가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날을 기다렸는지 목격하며 예수님을 생각해 보았다. “과연 우리가 살고 있는 때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믿지 않는 사람들은 물론이고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과연 성탄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가? In-N-Out 햄버거 가게가 열리기를 기다리는 것보다도 부족한 것은 아닌가 생각해 본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에서 성탄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그 햄버거 가게가 열리기를 기다리며 추운 날 그렇게 줄을 길게 서서 기다린 것 같이 기다린다면 얼마나 좋을까? 꿈도 꺾는다. 하지만 우리가 있지 않는가? 아무리 기다리는 줄이 길지 않다고 하여도 내가 예수님 오심을 기다리는 삶을 산다면 그 모습을 보는 세상이 얼마나 궁금해 할까? 하지만 내 스스로도 놀랍지 않고 궁금하지도 않으니 그 은혜를 세상이 못 보는 것은 아닌가?

그 햄버거 집의 광고 효과는 이루 말할 수 없었다. 사람들이 줄을 서서 있는 것 자체가 뉴스 낄이었기 때문이다. 어떻게 예수님의 오심과 햄버거 집과 비교되겠는가? 도전을 받고 우리가 그 뉴스를 만들어 나가야 하지 않겠는가.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 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4장 25-26절)

예수님께서 오심을 통하여 인생의 모든 문제는 해결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 가장 복된 소식인 성탄을 알려야 하지 않을까? 우리가 햄버거 집에 줄을 서 있는 사람들과 같이 예수님 앞에 줄을 서야하지 않을까? 그 때에 세상에 뉴스거리가 되고 그 일로 인하여 그 줄이 더욱 길어져 천국까지 이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비전으로 주신 세계 복음화의 역사가 이루어 질 것이다.

우리교회의 줄이 길어지도록 기도하며 그 긴 줄이 예수님께로 연결되어 다시는 세상에서 방황하지도 않고 다른 것을 먹으려고 하지 않는 영적인 천국의 입맛이 자리 잡아 죽을 인생이 사는 역사가 일어나리라 믿는다.